

끝나지 않은 5·18을 노래하다 뮤지컬 '비망'

직장인 뮤지컬 극단 '판청' 공연 21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2회 김유경 대표 필두 각색·연출 등 "광주서 뮤지컬 창구 만들고파"

"5·18민주화운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3세대, 청년들의 눈으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오월광주의 아픔을 노래하고자 했죠."

광주에서 활동하는 뮤지컬 극단 문화공동체 판청이 오는 21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오월뮤지컬 비망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에서 연출과 각색을 맡은 김유경 판청 대표와 주인공 명순을 연기한 박연주 씨는 인터뷰를 통해 "오월 시즌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광주에 가면 오월예술이 펼쳐지고 접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월뮤지컬 비망은 2024년 5월 현재,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고등학생 '경아'의 시선으로 1980년 5월의 광주를 비추고 있는 작품이다. 경아는 우연히 흑백 비디오 속 1980년 5월 광주를 마주하게 되고, 무대는 어느새 44년전 그날로 되돌아가는데... 매년 5월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계엄군 출신 아버지, 홀로 살아남아 고독스러운 삶을 사는 덕북, 계엄군의 총탄에 동생 명희를 잃은 명순 등이



문화공동체 판청이 오는 21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예정인 오월뮤지컬 '비망'을 연습하고 있다.

판청 제공

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5월의 이야기를 노래한다.

오월뮤지컬 비망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극단 공연예술창작터 수다의 창작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다. 2011년부터 매년 서울에서 공연된 작품으로 광주 단체 판청의 색깔로 지난해부터 광주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판청만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김유경 대표가 직접 원작의 많은 부분을 덜어내고 결론 부분을 과감히 수정했다.

김 대표는 "원작에서는 갈등의 주체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는 식으로 마무리되지만, 이번 판청 공연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결론 부분을 과감히 각색했다"며 "그날을 경험한 등장인물들은 결코 끝나지 않은 5·18을 여전히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5·18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세대가 아닌 교과서 등 텍스트로 5·18을 접한

세대에게도 울림을 주고 싶어, 현재를 살아가는 '경아' 캐릭터를 강조하기도 했다"며 "실제로 발포명령자 등이 밝혀지지 않았고 이는 5·18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 세대에게도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원작에서는 5·18을 경험한 배역들이 무대 커튼콜로 '오월의 노래'를 부르는데, 판청의 각색작품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경아가 '오월의 노래'를 부르며 '왜 쓰았지'라고 말한다. 각색작품은 이처럼

우리가 모두 연대하고 같이 아파해야 할 5·18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극 중에서 5·18을 직접 겪는 명순 역의 박연주 씨는 "여주인공 '명순'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 명희를 돌보며 5·18을 마주한다. 단단한 내면의 감정선을 살리기 위해 고민했다"며 "80년대 쉰 역양의 광주 사투리를 어색하지 않게 살리는 것을 가장 많이 연습했다. 7월에 광주의 5월을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공동체 판청은 광주에서 뮤지컬을 사랑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30여명이 모인 극단이다. 2018년부터 활동해 광주에서 매년 정기공연 1편 이상을 선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뮤지컬 극단 운영에 대한 포부도 말했다.

"뮤지컬 인프라가 전무한 지역에서 공연예술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꿈의 창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단원들이 이곳에 경험을 통해 연기, 노래, 무대미술, 조명 등 서로 재능을 나누고 프로의 세계를 꿈꿀 수 있길 바라요."

이번 공연은 오는 21일 오후 2시와 5시 두 차례 예정돼 있다. 전석 무료다. 예매문의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판청'을 통해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자료전으로 돌아본 '의재 허백련의 삶과 예술'

10월 27일까지 의재미술관

의재미술관은 2024년 기획전시로 '의재 허백련의 삶과 예술-자료전'을 오는 10월 27일까지 이어간다.

남종문인화의 거장인 의재 허백련(1891~1977)은 무등산 춘설헌에서 그림을 그리는 한편 농업학교를 세워 농업지도자를 길러냈다. 학생들과 함께 중심사 뒤편에 차밭을 일궈 춘설차라 이름하였고,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닦고 이를 보급하는 데도 힘썼다. 70대 후반에는 이념에 의해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무등산에 단군신전 건립을 위해 앞장섰다.

이번 전시에서 의재 허백련이 남긴 어록, 기록물, 신문기사, 사진, 작품 등을 바탕으로 화가로서뿐 아니라, 다인, 교육가, 그리고 행동하는 사회운동가로서의 허백련의 삶과 예술을 함께 볼 수 있다. 또 시인, 화가, 서예가 등 그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 비친 허백련의 삶과 철학도 접한다.

최치국의 그림 '의재 허백련 초상'은 노년의 허백련 모습을 사실적이며 담백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허백련이 그림 그리는 모습과 즐겨 사용하던 화선이 함께 적혀있다. 허백련의 초상을 지금까지 수많은 사진으로 접했다면 이 전시에서는 그의 노년 모습을 한국화로 만나보는 특별한 기회이다.

허백련이 전개한 화가, 교육가, 전통차 보급 등의 활동을 알 수 있는 다수의 신문기사도 있다. 1971년 12월 서울신문회관 화관에서 열린 '동양화 6대가전'에 관한 신문기사에는 허



최치국 작 '의재 허백련 초상'.

의재미술관 제공

백련의 '추강귀어'가 신문 지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당시 화가로서의 그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의재 허백련, 이당 김은호, 심산 노수현, 소정 변관식, 심향 박승무, 청전 이상범이 함께 한 이 전시에 관해 기사는 "한국 동양화단의 최고 원로 화백 여섯 분의 심오한 노경의 작품들을 초대 전시하는 최초의 동양화 6대가 전람회"라고 적고 있다.

허백련이 행한 일들의 근본인 하늘, 땅, 사람을 사랑하자는 '삼애정신'을 소전 손재형(1903~1981)이 간결한 필체로 표현한 서예 작품도 전시된다. 그 외에도 광주국민고등학교 제1회 졸업기념사진과 허백련이 춘설헌에서 연진회 제자들과 함께 합작하는 모습, 춘설헌을 찾은 인사들과의 사진은 그의 활동과 교류의 폭을 보여준다.

의재미술관은 동구 중심사길에 있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

도선인 기자

은암미술관, 여름방학 맞이 문화예술프로그램

'있어서 있는 자연과 우리' 24일까지 참여자 모집 등

은암미술관은 2024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 '있어서 있는 자연과 우리'에 참여할 인원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술과 무용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다. 초등 4, 5, 6학년 대상으로 오는 9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은암미술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무용과 미술을 융합해 환경과 관련한 창작체험 작품을 제작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각 회차별 자연을 주

제로 한 다양한 교육을 전문 강사와 함께하며 참가자들은 자유로운 감정표현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해본다.

총 10회차 중에서 오는 27일 운영되는 첫 번째 프로그램 '자연과 우리-맨땅에 맨들기'는 백상지와 백색전을 활용해 움직임 및 신체 표현을 탐구해보는 시간이다. 참여자들은 백상지와 백색전을 활용해 자연의 곡선과 직선을 몸으로 표현하고 각자의 생각대로 다양한 연출을 해본다.

이어 8월 3일 '몸과 판화로 이어보는 벽화' 8월 10일 '별별지킴단(라이트무브페인팅)' 8월 17일 '바다랑 만드는 예술(씨글라스 공예)' 8월 24일 '휴과 함께라면(도자체험)'

8월 31일 '쪽염료를 입다(염료체험)' 9월 7일 '자연 속에서 만드는 추억(무빙포토)' 9월 14일 '야, 너두 제로웨이스트?(리사이클링 공예)' 9월 21일 '빼기, 심기 황토농부!(친환경 놀이)' 9월 28일 '자연=우리, 다시 도약하며' 등이 계속된다.

참여신청은 은암미술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226-6677)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한다.

도선인 기자



관광헬퍼 '동구친구' 몽골 유학생과 투어

조선대 유학생 프로그램 협업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동구형 관광헬퍼 '동구 친구'가 지역대학 예비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인 CSU Summer School 관광 프로그램에서도 큰 활약을 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12일 '동구 친구'가 조선대학교 CSU Summer School에 참여 중인 몽골 예비 유학생 40여 명과 동구 명소관광 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CSU Summer School은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예비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이다. 조선대 몽골 자매학교 재학생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구 관광 투어는 CSU Summer School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관광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간·역사·수목을 볼 수 있는 'ACC 한바퀴'와 전일빌딩245의 5·18 역사 현장 체험 등 동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특히 '동구친구'가 몽골 예비 유학생들의 관광 가이드 역할 맡아 눈높이에 맞는

해설을 통해 관광 내내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동구친구'는 지난해 12월 동구만의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양성됐으며 지금까지 약 70회의 광주 동구의 다양한 문화·관광·축제 프로그램에 활동하며 지역관광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문창현 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는 "동구친구는 지역 주민 주도형 문화관광 멀티플러어로 동구 친구 역할을 더욱 확대해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동구 관광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